새로 나온 책

▶미스터 바이언스의 아찔한 과학책(바이언스 지음, 안라쿠 마사시 그림)=우주편, 생물편, 지구편, 인간편 등 총 네 가지 주제로 구성돼 있으며, 저자는 대중이 미처 생각하지 못한 독특하고 엉뚱한 질문을 던져 독자의 호기심을 자극하고 과학 상식에 근거한 재미있는 이야기로 결론을 도출해 낸다. 그린애플. 1만5000원.

▶말랑한 가족의 쫀득한 만화 고사성어(노재승 지음, 그림 장태희)=중문학자 엄마가 대학 신입생, 중3 두 딸에게 들려주는 고사성어 이야기. "말랑한 가족이 고사성어로 잘 지내고 있습니다" 이 책은 따뜻하고 '말랑말랑한' 가족의 일상 이야기를 찰떡같은 고사성어 비유로 '쫀득하게' 풀어낸 만화다. 뿌리와이파리. 1만8000원.

▶잘못된 게임(임지형 지음, 이유나 그림)=게임으로 얻은 친구, 게임으로 잃을 뻔한 하늘이의 좌충우돌 우정 배우기 대작전. 신선하고 트렌디한 소재로 어린이들에게 중요한 교훈을 따스한 어조로 전달하는 임지형 작가의 매력이 한껏 드러나는 책이다. 꿈터. 1만2000원.

▶사랑의 꿈(손보미 지음)=젊은 작가상 최다 수상 작가, 손보미 신작 소설집. 다양한 나이의 여자아이를 본격적으로 등장시키며 "연약하지만 다채롭고 위태롭지만 맹렬한 세계 속에 포함되어"(192쪽) 있는 인물들의 모습을 담아낸다. 문학동네. 1만6500원.

▶두고 온 여름(성해나 지음)=독자와 평단이 주목하는 신예 성해나의 첫 장편소설. 이제는 함께할 수 없는 인연과 슬픔도 후회도 없이 작별할 수 있는지, 실패한 이해와 닿지 못한 진심은 어떻게 의미 없이 사라지지 않고 희미하게나마 빛나는 기억으로 남게 되는지 한층 깊어진 응시와 서정으로 풀어냈다. 창비. 1만4000원.

▶넌 안녕하니(소노 아야코 지음, 오경순 옮김)=아쿠타가와상 후보에 오르면서 문단에 데뷔한 일본의 소설가 소노 아야코의 에세이. 이 책은 일상의 고단함과 문득문득 찾아오는 상실감을 겪는, 너무도 성실히 살아온 '나'에게 안부를 물어 나를 직시할 수 있도록 이끈다. 책읽는고양이. 1만3500원.

조상윤기자 sycho@ihalla.com

그럼에도 서로 가닿으려는 애씀의 시간

제시카 아우의 '눈이 올 정도로 추운지'

친밀한 타인, 모녀의 여행
서로를 온전히 이해못해도
진실하게 다가서려는 마음

"다른 사람을 알고 또 다른 사람이 나를 알아주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작가의 말'에서)

타인의 내면세계를 진실히 알고 이해하기란 쉬운 일이 아니다. 한 가족이라 하더라도.

그래도 우리는 공감하기 위한 노력을 한다. 타인을 온전히 이해할 순 없어도 진실하게 다가서기 위해 오늘도 첫걸음을 내딛는다.

타인에게 다가서는 방법은 여러가지가 있을 것이다. 타인을 이해하려 애쓰기보다는 불충분하고 부족한 방도들로 다가가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 될 것이다.

책 '눈이 올 정도로 추운지'(엘리 펴냄)는 엄마와 딸의 일본을 여행하는 몇 주의 시간을 그린다. 출판사는 서평에서 "엄마와 딸은 같은 공간을 거닐며 함께 시간을 보내지만 평행선을 그리는 듯 어느 한곳에서 교차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서로를 눈에 담고 생각하는 것은 멈추지 않는, 가끔은 상대의 기대를 저버리기도 하지만 그때마저도 옅은 선의를 담은 마음이 계속된다"고 책을 소개한다. 그리고 "'관계' '친밀'이라는 것을 포기하고 체념하기보다는 각자를 구성하는 한계의 영역을 인식하고 그에 담담히 수긍하겠다는 진실한 마음이 이어진다"고 덧붙인다.

책에서 엄마와 딸의 여행은 명확한 목적이나 분명한 이유도 없이 "왠지 그래야" 할 것 같다는 딸의 옅은 다짐에서 시작된다. 여행의 시간 속 끝없이 상대를 살피지만 어느 한계선 너머로까진 나아가지 못하고 머뭇거리는 둘의 관계가 쓸쓸하면서도 고요히 흐른다.

엄마와 딸의 대화, 화자인 딸의 기억과 상념, 서로에게 가닿으려 하나 실패할 뿐인 옅은 낙담과 그럼에도 그 마음을 이어보려는 애씀의 시간이 교차한다. 한 가족이더라도 언어, 기억, 쌓아온 지식에 기반해 향유하는 문화생활이 다를 수 있음을 딸은 직접적이지는 않지만 여러 장면을 통해 보여준다.

저자 제시카 아우가 데뷔작 이후 십여 년 만에 내놓은 이 책은 빅토리언 프리미어스 문학상, 노블상, 리딩스 뉴오스트레일리언 픽션상 등 호주 문학상을 석권했다. '뉴요커' 2022년 올해의 책에도 선정됐으며, 전 세계 18개국 언어로 번역 출간됐다. 이예원 옮김. 1만4800원.

오은지기자 ejoh@ihalla.com

"선동가의 시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선동은 쉽고 민주주의는 어렵다'

"선동은 정치인들이 무엇을 하는지에 관한 것이 아니라, 시민들이 어떻게 주장하고 생각하고 투표하는지에 관한 것이다. 그러므로 정치 문화에서 선동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는 것은 우리의 문제고, 문제의 해결 역시 우리에게 달려 있다."('들어가며' 중에서)

'민주주의를 오염시키는 선동의 수사학'이란 부제가 달린 책 '선동은 쉽고 민주주의는 어렵다'(힐데와소피 펴냄)는 선동이란 무엇인지 사례와 함께 다루고, 선동을 구별하고 선동에 맞서는 몇 가지 방법과 선동이 주로 사용하는 논쟁 방식의 오류 등을 짚는다. 내용은 ▷민주적 숙의의 원칙들 ▷선동을 구별하는 잘못된 방법 ▷선동이란 무엇인가 ▷선동은 어떻게 작동하는가 ▷선동의 사례 ▷선동이 문화가 되는 과정 ▷선동에 맞서는 방법과 도구들 등 크게 7장으로 나눠 엮었다.

출판사는 서평에서 "선동은 우리는 틀리지 않고 그들이 틀렸다고 말한다. 선동의 수사학이 거세질수록 구성원 모두가 공동의 삶을 함께 걱정하고 정직하게 반대하고 생산적으로 숙의한다는 민주주의 전제는 흔들린다"고 밝힌다. 이어 "결국 진짜 문제는 선동적인 언어를 소비하고 확산하는 지금의 정치문화다. 선동가를 사라지게 한다고 해서 공론장이 저절로 회복되지 않는다"며 "문화를 바꾸지 않는다면 우리는 이전보다 더 강력한 선동가를 얻게 될 것"이라고 덧붙인다. 그리고 "더 나은 민주주의를 고민하며 일상에서 실천을 행하고자 하는" 이들에게 이 책을 권한다. 김선 옮김. 1만4000원.

오은지기자

홀로 고고히, 따로 또 같이, 지상을 수놓는

김종범·조용훈의 '제주의 무덤'

사진가 김종범이 지난 4년간 제주를 드나들며 드론 촬영한 제주의 무덤 사진에, 문학평론가 조용훈이 '지상에 새긴 별'이라는 소재의 글을 써 포토에세이집 '제주의 무덤'(몽트 펴냄)으로 엮었다

조용훈은 김종범 작가의 수많은 작품을 '홀로 고고한' '따로 또 같이' '문명과 만나는' '근원과 함께' '지상을 수놓다'의 관점으로 유형화해 무덤의 존재 방식을 구분한다. 특히 사진은 새의 시선으로 시각적인 새로움과 즐거움을 선사한다.

'작가노트'에서 김종범 작가는 "무덤(산담)을 에워싼 기하학적인 자연색의 패턴과 억새 숲을 헤집고 다닌 동물들의 흔적, 그리고 후손들이 일구어 가는 농작물은 자연과 아름다운 조화를 이루는 '생명' 그 자체였다"고 말한다.

조용훈 평론가는 프롤로그에서 "산담은 삶과 죽음 그사이, 아슬한 경계를 구획하고 또는 넘나들며 세속과 숭고, 이승과 저승, 삶과 죽음의 공존을 시각화했다"며 "이 기묘하고 독특한 풍경이 '죽음의 삶' 혹은 '삶의 죽음'의 언어를 동시에 전해 주었다"고 말한다. 그는 또 "무덤을 조용히 응시하면서도 못내 아쉬운 것은, 급격하게 변하는 제주도의 장례문화가 무덤의 존재를 위태롭게 한다는 점"을 짚는다. 1만8000원.

인간과 동물이 함께 살아가는 길

김란의 그림책 '돌고래 복순이'

제주출신 김란 동화작가가 최근 사람과 자연의 생명들이 함께 살아가는 길을 보여주는 생태·환경 그림책 '돌고래 복순이'를 펴냈다.

'돌고래 복순이'는 사람들에게 즐거움을 주기 위한 시설에 갇혀 자유를 잃고 좁은 공간에서 고통받는 남방큰돌고래들의 이야기이다.

실제 '돌고래 불법 포획 사건'을 바탕으로 글을 쓰며 작가는 남방큰돌고래뿐만 아니라 모든 바다 생명이 자유롭게 살아가기를 바라는 마음을 그림책에 담았다.

책은 희망을 잃지 않고 서로를 의지하며 넓은 바다를 꿈꾸는 돌고래들의 모습을 통해 동물권에 대한 생각을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춰 설명해 준다.

출판사는 "어린이들은 이 책을 통해 인간과 동물이 서로를 존중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인간의 선택으로 고향을 뺏긴 돌고래들이 그들의 터전으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의 관심이 필요하다는 것을 자연스럽게 배우게 될 것"이라고 소개한다. 소미아이. 1만4000원.

오은지기자